

# 광양시 이차전지·그린수소 등 미래 산업 선점 본격화

### 신성장 동력 발굴 실행방안 보고회...용역 제시 35개 사업 검토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 유치·희소금속 비축 거점 조성 등 논의

광양시가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이차전지 소재부품 스마트공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24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 실행방안' 보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이 주재하고 부서장 15명이 참석했다.

광양시는 지난 4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 제시된 35개 사업안에 대해 이날 1차 검토를 했다.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수행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은 지난 2017년 수립한 '2030 광양시 종합발전 계획'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서에는 '항만·철강 연관산업 육성·지원' '기후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 '남해안 남부권 신성장 거점지대 도약' '남해안 남부권 문화·관광 중심지대' '누구나 편안한 미래 행복도시' 등 전략에 맞춘 세부 사업안이 담겼다.

관련 부서장들은 사업 실행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방안을 찾았다.

광양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신성장 사업은 '미래 산업 분야 글로벌 R&D 센터 유치'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정혁신 스마트공장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생산은 광양의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양 국가산단은 산단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운송 부문과 항만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 3대 기본계획 변경'과 '항만 연관 산업 실태조사'도 주요 현안으로 나왔다.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광양에 희소금속 비축·재자원화 거점을 조성하자는 방안도 공유했다.

광양항만은 그동안 다져놓은 국제 물류 기반과 포스코 등의 철강산업 기반, 인근 여수 중화확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어 희소금속 소재의 대량 비축

과 신소재·친환경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광양시는 설명했다.

중앙부처와 기업 협력이 필요한 그린수소 생산 기지 구축과 상용차 중심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에 대해서도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정부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공공지원 건축물을 건립하는 등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거론된 사업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주무 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다. 사업안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등도 열기로 했다.

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증가, 인구 유입,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대규모 사업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이번에 발굴된 35개 사업에 대해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사고로 사업을 추진해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심콩여행 첫 주자로 나선 남원교육지원청 소속 방문객들이 지난 22일 오후면 오지리 한국 초콜릿연구소 뮤지엄을 찾아 초콜릿을 만들고 있다. (곡성군 제공)

## 남원 다문화가족 '곡성 심콩여행' 즐겼다

### 첫번째 주자 30명 인문학 여행 6개팀 예약...학교 등 통해 신청

곡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곡성 심콩여행' 첫 번째 여정이 시작했다. 주인공은 남원 다문화가족 30여 명이다.

곡성군은 남원교육지원청의 신청으로 남원지역 가족 단위 방문객 30여 명이 지난 22일 '곡성 심콩여행'을 다녀갔다고 26일 밝혔다.

곡성 심콩여행은 지난 2월 곡성군이 개발해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나 학교, 직장, 역사 여행 동호회 등 30명 안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층에 맞는 여행을 마련했다.

역사 탐방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인문학 여행으로, 학교와 교육청 등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현재 6개 팀이 곡성 심콩여행을 예약했다.

곡성 심콩여행을 이용하면 기차마을 입장료

와 레일바이크 이용료를 할인받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남원교육지원청 방문객들은 이날 임진왜란 시대의 영웅, 양대박 장군의 전적지와 6·25 전쟁 현장을 방문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사 해설을 들었다.

점심시간에는 곡성군의 대표 먹거리인 개비정식을 즐겼다. 이후에는 기차마을 내 곡성생태학습관으로 이동해 꼬마잡자의 생태 변화를 체험하고 자유시간을 보냈다. 또 체험객들은 생태학습관을 둘러보며 로봇 바리스타가 만들어 주는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한국 초콜릿연구소 뮤지엄에서 직접 초콜릿을 만들기도 했다.

곡성 심콩여행을 처음 진행하고 한 설문조사에서는 체험객의 97%가 심콩여행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와 체험을 결합한 여행 상품을 발굴해 이야기 풍부한 곡성 감성 여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7~8월 다양한 공연과 물놀이, 동물 체험을 마련했다. 오천그린광장에 조성된 워터 아일랜드와 음악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순천시 제공)

## 여름방학 3색 바캉스...순천만정원박람회로 오세요

### 물놀이장·문화공연·동물원 가족 관광객 즐길거리 다채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름방학인 7~8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물놀이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1층 영상관에서는 7~8월 주말 실내 공연이 펼쳐진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시에는 과학 마술 공연이 열리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4시에는 빛을

활용한 레이저 공연이 진행된다.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주말마다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다음 달에는 비보잉, DJ·힙합, 태권도 공연 등 흥겨운 무대와 시민 오케스트라, 재즈페스티벌이 이어진다.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국제습지센터 인근 물놀이장은 미끄럼틀과 바닥 분수를 갖추고, 오천그린광장 안에 있는 '워터 아일랜드'에서는 초대형 물 미끄럼틀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국가정원에 흐르는 개울 곳곳에 놓인 간이집대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국가정원 서원에 있는 어린이 동물원도 인기 공간이다.

이곳에는 사막여우, 물범, 미어캣, 다람쥐원숭이 등 9종의 포유류와 공작, 청공작, 사랑앵무와 같은 조류와 육지 거북도 만날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30분 체험·30분 휴식)는 앵무새와 알파카, 토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동물원 인근 물새놀이터에는 핑크빛 홍학과 새하얀 흑고니가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습지센터 1층에 조성된 순천만탐험관에서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지역 초·중학생 대상 다채로운 여름방학 과학교육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여름방학 과학 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초등학교 86명을 대상으로 '레벨-업 브릭캠프'를 연다.

이 수업은 이틀간 6시간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브릭캠프에서는 학년별 코딩(컴퓨터용 언어 제작)과 로봇 기술을 융합한 세 가지 교육이 이뤄진다.

다음 달 9일과 17일에는 곡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초등학교 25명과 전남과학대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교 37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한다. 스피로, 웹스터 로봇과 증강 현실(AR) 낚시 체험 등이 펼쳐진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과학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과학 캠프. (곡성군 제공)

오는 8월4일에는 중학생 30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마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협력한 이 교육에서는 휴머로이드 로봇, 드론, 자율주행 체험을 하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미래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여수시가 지난 25일 시청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연계 사업안을 검토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2026년 섬박람회 연계 15개사업 발굴

### 1차 14개, 2차 12개 이어 추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여는 여수시가 각 분야에서 박람회와 연계할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5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도비 지원 섬박람회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주재했고, 섬박람회 연계사업 총괄 보고와 국·소·단별 추진사항 보고 등이 이어졌다.

여수시 12개 부서는 문화·예술, 행사·안전, 도시환경, 관광, 지역 경제 등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새로 발굴했다.

발굴한 사업안은 내년 국·도비 건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올해 1차 보고회(3월31일)와 2차 보고회(5월18일)에서 각각 14개, 12개 연계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이 확정되면 섬박람회 연계 행사를 열고 섬 주민 참여 방안 등을 갖출 예정이다.

섬 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섬 특성화 사업 등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정기명 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협업체 연계사업을 꼼꼼히 찾아야 한다"며 "섬박람회를 통해 섬 주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우리 여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의 아름다운 경관 앵글에 담아 주세요

### 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

"보성 차밭, 득량만 바다낚시공원, 울포 해수욕장 등 보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앵글에 담으세요." 보성군이 '2023 보성 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을 연다.

작품 접수는 오는 11월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관광 사진 공모전에서는 보성을 주제로 한 사계절 사진을 공개 모집한다.

보성의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보성세계자연스프, 보성다향대축제, 서면제소리축제, 보성불꽃

축제 등 생생한 축제 현장을 담아도 된다.

이번 공모전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가 주관하며 보성군, 보성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남도지회가 후원한다.

작품은 국내외 발표하지 않은 3000픽셀 이상의 디지털 사진(11×14인치)이어야 한다. 사진을 인쇄해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로 내면 된다. 작품 뒷면에는 작품명,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촬영 장소, 촬영 일시 등을 적은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